

일본독자들도 '스포츠가 좋아요'

간다거리의 스포츠 전문서점 '쇼센 북마트'

김은지

일본쇼와여자대학 · 일문학 전공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젊은이 취향에 맞게 특색 살려

종합서점으로는 버터내기 힘들던 차에 주변환경의 변화를 재빨리 도입하여 젊은이 취향에 맞게 각 층마다 뚜렷한 특색을 살린 것이 '쇼센북마트'가 오늘날과 같이 성공한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올해로 개점 31년째인 '쇼센북마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스포츠 관련서와 비디오테이프·CD를 갖추고 있다. 축구·야구 등 인기종목 뿐만 아니라 합기도·유도·태극권 등 격투기 같은 희귀종목 관련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모든 스포츠 잡지의 과월호를 모두 갖추고 있어 스포츠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하 1층에는 악보와 CD음반을 중심으로 한 영화와 음악 관련 코너가 있어 영화·음악 잡지, 밴드·클래식·기타·전자음악 등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동차·오토바이 관계서와 잡지 코너도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지하 1층 매장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레슬링과 격투기 관련서다. 합기도·유도·복싱·중국권법·태극권·프로레슬링 등이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축구·야구 등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의 스포츠 관련서는 다른 서점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 보편화되지 않은 격투기에 관한 자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희귀한 종목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은 개개로는 적은 수의 손님일지라도 모이면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한 것. 지하 1층 매장에서는 6월 한달간 <검도 북페어>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프로레슬러를 초청하여 사인회도 개최하고 있다.

1층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한쪽에 최신간

코너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전반에 걸친 서적과 비디오테이프 가득차 있다. 하이킹·낚시·캠핑·등산·자전거·배구·농구·테니스·경마·스키·여행·지도 등 스포츠뿐만 아니라 취미와 여가 분야에까지 이른다. 쇼센북마트가 또 한가지 정평이 나 있는 것은 바로 축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잡지를 창간호부터 구비하고 있다는 것. 다른 서점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스포츠 잡지의 지난호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스포츠광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곳이다.

2층은 사진집과 컴퓨터 게임용, 3층은 만화책과 만화영상,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한 코믹물과 캐릭터상품을, 4층은 만화 동인지, 만화 비디오, 코믹 노벨스, 코믹 문고를 각각 판매하고 있다. 특히 신인 만화가와 유명 만화가가 함께 자비로 출판하는 만화계의 각종 동인지는 작가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잡지를 개인에게 보내주는 통신판매도 하고 있으며 외국과도 거래를 시작, 프랑스와 미국에 정기적으로 코믹물과 잡지를 보내주고 있다.

하루 2천 5백여명의 독자 발길

스포츠 관련도서에서 코믹물·사진집·음반까지 한꺼번에 구할 수 있기에 쇼센북마트를 찾는 독자층은 당연히 젊은이가 대부분인데 이용자수는 하루 평균 2천 5백여명에 이른다. 진보초의 헌책방가에도 별로 없는 독특한 서점인지만 헌책방을 돌다가 들르는 사람보다는 스포츠용품가에 온김에 들르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스포츠, 프로레슬링하

· 지하 1층 매장의 반이상은 프로레슬링과 격투기 관련서가 차지하는데, 6월에는 <검도 북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면 바로 쇼센북마트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손님도 많다.

점장 사토우씨는 쇼센에서만 40년째 몸담고 있는 베테랑 북마트의 점장으로 온 지는 5년째다.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하루 평균 35명이며 전반적인 경영은 그룹 단위로 매주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세한 것은 각 층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함께 결정한다고 한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월드컵 관련 특설코너를 따로 마련할 만도 하지만, 원래부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여느 서점 못지 않기 때문에 따로 특설코너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는 직

원에게서 이 분야 일본 최대라는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시합의 승패가 이 기간의 판매량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 자체는 대단한 듯하다.

월드컵 코너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어도 <선데이 마이니치>와 <주간 아사히> 등 각 잡지사에서 월드컵 카운트다운 중간호를 내놓고 있어 이곳에서도 월드컵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열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아무튼 20세기 최후의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기까지 이곳 쇼센북마트를 찾는 독자의 발걸음도 여느 때보다 더욱 많아지려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 일본 최대의 서점가 간다의 중심부 진보초 1가에 자리한 '쇼센북마트'.



· 스포츠 관련서만 10만 여권을 갖춘 '쇼센'은 희귀 종목의 스포츠서는 물론 스포츠 모든 분야의 잡지를 창간호부터 구비하고 있어 스포츠광들에겐 놓칠 수 없는 곳이다.

